

### 암스테르담,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센서에 대해 등록제 도입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gmb-2021-368183.html>  
<https://www.amsterdam.nl/privacy/camera-sensoren-priv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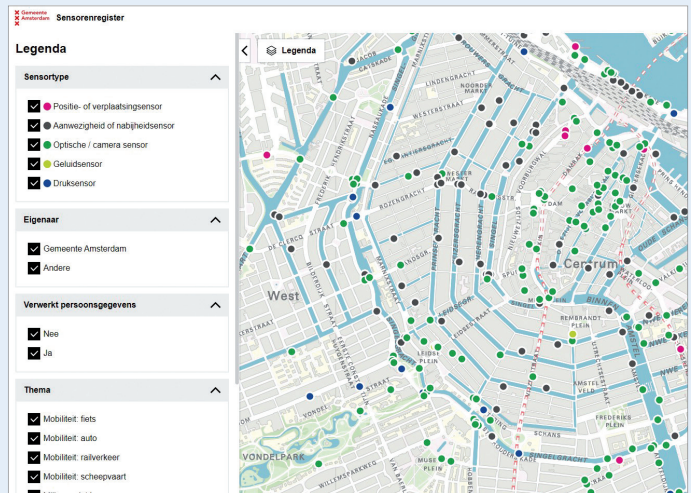
암스테르담에서 대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를 설치할 때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일반 지방 조례 2008'을 개정, 공공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센서 등록제'를 도입했다. 연구 또는 상업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부, 기업, 과학 및 연구기관은 2021년 12월 1일부터 각 센서와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조례에서 지칭하는 센서는 시민의 이동을 감지하는 센서부터 소리 감지 센서와 감시·보안을 목적으로 한 카메라 등을 포함하며 쇼핑몰 내 카메라,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교통 카메라, 공기 질을 측정하는 센서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관은 도로·차량·선박 등 공공시설에 이러한 센서를 설치할 때 최소 5일 전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수집한 기관 및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거나 공공질서 유지와 범죄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센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암스테르담은 센서 등록제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를 통해 암스테르담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2021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센서 등록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카운팅 센서 및 Wi-Fi 추적 표지판



센서 등록 현황

출처: 암스테르담 정부 홈페이지, [www.amsterdam.nl/innovatie/digitalisering-technologie/data/zicht-sensoren-openbare-ruimte/](http://www.amsterdam.nl/innovatie/digitalisering-technologie/data/zicht-sensoren-openbare-ruimte/)(검색일: 2022.3.14.)